

# 신약개발 기근에 재활용 신약 “활개”

혁신기술 개발은 시간·비용 부담 ... 단기간에 개발 가능한 복합제 관심

기존 약품을 조합한 복합성분 신약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분기에 각종 심사를 신청한 순환계 약품 187건 중 복합제가 38%를 차지했다고 4월 15일 발표했다.

순환계 약품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말한다.

식약청이 심사한 복합성분 순환계 치료제 71건 중 61건은 2종의 기존 고혈압 치료제가 들어 있는 약품이며 8건은 고혈압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2건은 고지혈증 치료제 2종이 들어 있는 복합제이다.

또 2010년 들어 1/4분기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27건의 후보물질 중 복합제가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복합 성분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이유는 새로운 물질로 만든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데 장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낮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분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이 적은 개발비용으로 단기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5>